

장성 진원초, 'EM 흙공으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EM 흙공 직접 만들어 발효과정 3주 동안 살피며 생태 이해 높여 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 전교생 직접 EM 활성액·발효축진제

장성 진원초등학교는 10월 1일 학교 사랑의 날을 맞아 'EM 흙공으로 깨끗한 환경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2022년 학교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교생이 직접 EM 활성액과 발효축진제를 황토에 섞어 야구공 크기의 흙공 1000여개를 만들어 3주 동안 발효시킨 후 진원초 근처 산정천에 흙공을 던졌다.

EM 흙공은 수질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균을 이용해 하천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질 제거하게 되는데 수질 정화와 악취 해소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초 학생들은 EM 흙공을 직접 반죽하고 만들며 발효과정을 3주 동안 살피면서 생태의 이해를 높였고, EM 흙공을 던지는 활동을 통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진원초 6학년 박승민 학생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 환경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직접 만든 EM 흙공으로 더욱 맑아지고 깨끗해진 산정천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진원 예술체육 학생회가 주관하여 학교 주변을 돌며 환경정화 활동과 학교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학교 교가 및 진원초 로고송 부르기, 학교 교표 및 진원초 캐릭터 그리기, 학교 사랑 보석 십자수 만들기, 학교 자랑 UCC 영상 제작 등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문예 활동을 하며 학교 사랑에 대한 자긍심과 소중함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겨운 교사는 "우리학교와 학생들에게 뜻깊은 99주년 행사가 되어 기쁘다. 학생들의 추억이 깃든 정든 학교, 정든 마을, 정든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연숙 교장은 "EM 흙공은 수심종의 유용한 미생물이 들어있어 하



천의 토양 복원, 악취제거 등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정천의 수질 개선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깨끗한 학교환경과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신안 흑산초,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관광으로 힐링



신안 흑산초등학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생태관광프로그램을 지난 10월 1일 운영하였다.

해안로 생태탐방 프로그램

학생들은 자연환경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배낭기미습지와 진리당 숲, 새조각공원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햇살, 소나무 그늘, 시원한 바람, 탁트인 바다 등 자연을 누리며 봄과 가을의 계절에 따라 변화된 진리당 숲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또한 배낭기미 해수욕장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거머리말 등 식물과 하루 약 3,000여 개의 모래공을 만들어내는 염낭게 등 동물을 관찰하였다. 신안=이덕주기자

광양 마동초, 즐거운 '생존 수영 활동'

3~6학년 대상

광양 마동초등학교는 9월 27일~ 10월 28일 3-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생존 수영실기(이론) 교육을 각 반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계층인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안전) 수영 교육과 수영 기능교육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수영 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을 기르며 기초체력 향상 및 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교육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수영장이 아닌 교실에서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거리 유지를 지키며 안전하게 교육을 하였다.학습 내용으로 '구명조끼 착용



방법'부력 도구 종류 알아보기" 스킨랩"체온유지 방법" 고무 보트 탑승" 2인 1조 구조"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이 구성되었다. 광양=심종섭기자

진도 서초,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수업나누기



코로나19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도서초등학교가사도분교장은 9월 30일 '학부모 공개수업'을 운영하였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부모는 2학년 학생(이현주) 1명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다. 현재 분교장은 전교생 한 명(2학년 1명)으로 담임 선생님과 돌이서 수업을 하고 있다.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이성호)는 학생 한명으로 인한 교과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스마트기기(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다인수 학교의 학

'학부모 공개수업' 운영

한 서로의 역할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참석한 학부모(그라호 클레오페)는 한국에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였다. 담임 교사는 이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번역기' 앱을 활용함으로써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수업이 끝난 후, 한해동안 선생님과 함께 재배한 고구마를 부모님에게 대접함으로써 자연스레 학부모 상담과 연수 시간을 확보했다. 이날 '학부모공개수업'이 의미 있었던 점은 단지 학부모가 교사와 자녀의 수업 모습을 관찰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러한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소인수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담임교사(이성호)는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